화학공장 특별 안전점검 실시

노동부, 울산 · 여천 · 대산 · 인천지역 대상 … 중소공장 위주

노동부는 8월24일 발생한 여천공단 호성케멕스 공장 폭발사고를 계기로 전국의 화재 · 폭발 발생 우려가 높은 중 · 소규모 석유화학공장을 대상으로 안전조치 이행여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화학공장이 밀집되어 있는 울산 · 여천 · 대산공단 및 인천지역의 300인 미만 중 ·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9월 한달동안 실시한다.

점검내용은 화학설비에 대한 안전밸브 · 파열판 등 폭발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 부착여부 및 설비의 이상반응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는 계측장치의 설치 여부이다.

노동부는 호성케멕스 여천공장이 폭발사고를 일으킨 것은 화학설비의 이상화학반응 등으로 급격한 압력상승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밸브 · 파열판을 부착하고 용기의 이상상태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해 계측장치를 설치해야 하나,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파악하고 있다.

아울러 MEK(Methyl Ethyl Ketone) 과산화물에 잔존하는 황산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중화처리하도록 작업요령이 작성되어 있으나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작업을 수행, 황산과의 반응을 방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호성케멕스 여천공장은 많은 종류의 화학제품을 소량으로 빈번히 생산함에 따라 작업의 내용이나 공정의 운전절차 등이 수시로 변화하는 공정의 특성상 화재나 폭발 등 대형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

노동부는 대부분 안전관리가 취약한 중 · 소규모 화학공장에서 비슷한 설비를 많이 보유하고 있어 앞으로도 비슷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중 · 소규모 석유화학공장의 철저한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화학제품 반응 및 저장용기 등 화학설비의 안전밸브 · 파열판 등 폭발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부착 여부, 화학설비의 이상반응으로 인한 온도 · 압력 상승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계측장치(온도계 · 압력계 · PH meter 등) 설치여부, 화학공정의 작업요령 작성 및 준수여부 등이다.

특별점검 결과 안전장치 미설치 업소는 즉시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해당공정설비에 대한 안전장치 설치 후 작업을 재개토록 조치하며, 특히 노후설비 보유업소는 공정 전반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해 잠재된 위험성을 발굴해 개선대책을 수립 · 시행하고, 노후설비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개 · 보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노동부는 호성케멕스 여천공장 공장장(오영우) 및 생산지원팀장(이진석)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로 2000년 9월2일 구속했으며, 현재 여수지방노동사무소에서 수사중이다.

<화학저널 2000/9/25>